

삼 성 신 화 와 혼 인 지

양 중 해

1. 서 론

성산면(城山面) 온평리(溫坪里)마을에서 한라산 쪽으로 향해 뻗은 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다 보면, 질퍽한 벌판 위에 흥건히 물이 고여 있는 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못이 제주도의 삼성신화에서 세 을나(乙那)가 동쪽 바닷가에서 올라온 「벽랑국」의 공주를 맞아 혼례를 올린 곳이라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혼인지」인 것이다.

이 「혼인지」는, 제주도의 개척 신화 중에서도 제주도 최초의 조상인 세 사람의 신인의 혼인과 관련된, 가장 낭만적인 전설을 간직한 곳이기에, 사적으로 보나, 제주도의 관광자원으로 보나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는 곳이라 할만 하지만,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방치된 채, 소와 딸의 음료수 터로 밖에는 인식되어 오지 못했었다는 것은 뜻있는 인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던 것이 근년에 이르러 애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온평리」이민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 유서 깊은 「혼인지」를 가꾸고 보존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동리 출신인 강달수(康達秀)씨의 독지로써 그 못가에 「혼인지」라는 표석이 서게 되면서부터 전체 도민은 물론 외래객 들까지도 이 「혼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겠다.

때미침 서울 소재의 「리라재단」에서 관광센터로서의 「성산봉」 개발설이 일고 있고, 지금 한창 제주도 우회도로의 포장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 이 「혼인지」는 많은 외래객들의 방문을 받게 될 것이요, 도내 유수

의 판공자원이므로서도 자광을 받게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이 「혼인지」의 미화·보존 문체는 비록 온평리 이인들만의 관심사에 그칠것이 아니라, 전체 도민의 관심많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즈음하여 이 「혼인지」에 관련된 삼성신화물 비롯한 역사적인 기록과 끼쳐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재검토해 본다는 것은 뜻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문헌상의 기록

제주도 삼성시조신화에 있어서는, 개척신인 세 울나(乙那)가 제주도 동쪽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바다에서 떠밀려와 표착한 「벽랑국」 또는 「일본국」 풍주를 맞아 혼례를 치른 곳이 오늘의 「온평리」(溫坪里)로 되어 있으나 그 자리가 「온평리」 어디라고 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먼저 이 세 신인의 출생에서 혼인, 그리고 정착 생활에 관한 기록을 문헌에서 더듬어 보기로 한다.

이조 효종 4년 (1653), 목사 이원진(李元鎭)에 의하여 꾸며지고, 전적(典籍) 고흥진(高弘進)의 감교한「탐라지」(耽羅誌)의 「고적」(古跡)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삼성혈」 제주에서 남쪽으로 3리쯤 떨어진 곳에 있으니, 옛 이름은 「모흥혈」(毛興穴)이다. 고려사 고기(高麗史 古記)에 이르기를, 길초에 사람이 없더니 세 신인(神人)이 땅에서 솟아났다. 지금의 한라산 북녘기슭에 혈(穴)이 있어 「모흥굴」이라고 부르는 곳이 이것이다.

말이 「양울나」요 비금이 「고울나」이며 세체가 「부을라」라. 세 사람은 거친 들판에서 사냥을 하여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면서 살더니 하루는 자주빛 흙으로 봉하여진 목합이 동쪽 바닷가에 떠밀려 왔으므로 나아가 이를 열었더니 안에는 석합이 있고 붉은 띠를 두르고 자주빛 옷을 입은 사자가 따라 왔다가 합을 여니 파랑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송아지 땅아지 오곡의 씨앗이 있었다.



이에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일본나라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이 세 따님을 받으시고 이르시되 서쪽바다 산길속에 선자(禰子) 세 사람이 탄강하시고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백필이 없으시다 말씀하시며 선(臣)에게 명하시어 세 따님을 모시도록 하셨으므로 왔사오니 마땅히 짝으로 삼으시고 써 대업을 이루소서」하고 사자는 갑자기 구름을 타고 가버리거늘 세 사람이 나이의 차례에 따라 나누어 장가들고 물이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점쳐있으니 「양울나」가 거처하는 터를 「제일도」라 하였고 「고울나」가 거처하는 터를 「제이도」라 하였으며 「부울나」가 거처하는 터를 「제삼도」라 하였다. 비토소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소와 말을 길렀으니 날로 부서를 이루더라.

(原文. 三姓穴 在州南三里 即古毛興穴 高麗史 古記云 厥初無人物 三神人從地湧出 今鎮山北麓有穴曰毛興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皮衣肉食 一日見紫泥封木函 浮至東海濱就而開之 內有石函 有一紅帶 紫衣使者隨來開函 有青衣處女三人及諸駒犢五穀種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嶽 降禰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而來 宜作配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歲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射卜地 良乙那所居曰第一徒 高乙那所居曰第二徒 夫乙那所居曰第三徒 始播五穀且牧駒犢日就富庶)

제주도의 역사, 지리, 풍속등을 기록한 제주도 최초의 문헌으로는 전기「탐라지」를 들 수 밖에 없다고 하겠으나, 이와 전후하여 중앙에서 편찬된 역사지, 지리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탐라지」라는 제호의 서적은 그 뒤에도 몇차례 편찬된 일이 있기 때문에 위에 인용한 이 원전편 「탐라지」를 편의상 여기에서는 「이원전 탐라지」라고 부르고자 하거니와, 이 「이원전 탐라지」에는 「혼인지」가 은평리에 있다는 기록은 없고 「수전소」(水戰所)로서의 은평리만을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곧 동 「탐라지」 정의현(旌義縣) 수전소(水戰所) 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열운포」현의 동쪽 20리쯤에 있으며, 판옥전선 1척, 대변량 1석, 사격병 85명, 본소는 전에 오조포에 있었던 것을 지금에 이포로 옮겨온 것이다.

(原文 閱雲浦在縣東二十里 有板屋戰船一隻 待變糧一石 射格并八十五名 本所舊在五照浦今移此浦)

여기 「열운포」(閱雲浦)는 오늘날의 「온평리」의 옛 이름으로서, 이 「온평리」는 지금도 속명으로 「열운리」로 불리우고 있음을 알렸거니와 위의 기록은 수전소(水戰所)에 관한 기록이기 오늘날의 이 「온평리」가 그 옛날 군사적 요충지였음은 알겠으나 제주도 개국신의 혼인에 관한 기록은 없다.

이조 성종 11년(1480)에 이루어지고, 그뒤 중종대에 와서 새로 증보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도 삼성신화가 수록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이원진 탐라지」의 「고적」(古跡) 조와 같다.

(原文, 三姓穴 在州南三里 卽古毛興穴 高麗史古記云 厥初無人物 三神人從地湧出 今嶺山北麓有穴曰毛興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皮衣肉食 一日兒紫泥封木函 符至東海濱 就而開之內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開函有青衣處女三人及諸駒犢五穀種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嶽 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而來 宜作配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歲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射卜地 良乙那所居曰第一徙 高乙那所居曰第二徙 夫乙那所居曰第三徙 始播五穀且牧駒犢日就富庶)

이조 성종 19년(1488)에 이루어진 「동국통감」(東國通鑑)의 「여백제통사」(與百濟通史)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병진(丙辰)동 10월 백제는 서울을 웅진(熊津)으로 옮겼다. (중략).

탐라는 남쪽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옛날에는 사람이 없었다가 세 신인이 땅에서 솟아났으니 말이 「양을나」요, 버금은 「고을나」이며 세제가 「부를나」라 하루는 세사람이 바닷가로 사냥을 나갔다가 석함을 얻었는데 이를 열고 보니 세 처녀와 송아지 망아지 오곡의 씨앗이 있었다. 마침내 세 처녀를 나누어 장가들고 제마다 샘물이 좋고 땅이 기름진 곳을 점치어 살았으니 「양을나」가 사는 곳을 「제일도」라 하였고 「고을나」가 사는 곳을 「제이도」라 하였으며 「부를나」가 사는 곳을 「제삼도」라 하였다.

비로소 오곡의 씨앗을 뿌렸으며 송아지 망아지를 길러 날로 부서물이 루었다.

「탐라」는 혹 「탐모라」라고도 불리었다.

(原文, 丙辰冬十月 百濟移都熊津(中略)夏四月耽羅國獻方物于百濟王喜拜使者爲恩率 耽羅在南海中 古初無人物 有三神人從地湧出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一日三人出獵海濱 得石函 開之有三女及諸駒犢五穀種 遂分娶三女各就泉甘土肥處卜居焉 良乙那居曰第一都 高乙那居曰第二都 夫乙那居曰第三都 婦播五穀且牧駒犢 日就富庶 耽羅_羅稱耽牟羅)

「동국통감」은 신라 초기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編年體)로 엮은 책인데 시기는 세조(世祖)때에 되었으나 성종 때에 와서 서거정(徐居正)등이 어명에 의하여 완성한 것이다. 「삼국사기」 「고려사」등 이주된 자료로 되어 있다.

이조 정조(正祖)때에 헌치윤에 의하여 편찬된 「해동역사」(海東譯史)는 그 자료는 중국과 일본의 사승 가운데서 한국에 관한 기록만을 추려 낸 것인데, 제주도의 개국신화민은 「동국통감」의 수록 내용과 같다.

(原文, 耽羅亦曰耽牟羅 其國在百濟南海中 古初無人物 三神人從地湧出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一日三人出獵海濱 得石函 開之有三女及諸駒犢五穀種 遂分娶三女 各就泉甘土肥處卜居焉 良乙那居曰第一都

高乙那居曰第二都 夫乙那居曰第三都 始播五穀且牧駒犢日就富庶)

서기 1918년 김석익(金錫翼)에 의하여 위어진 「탐라기년」(耽羅紀年)은 「이원진 탐라지」이래 제주도에서 편찬된 역사, 지리지로서는 가장 대표작인 문헌인 것인데, 삼성신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길초에 사람이 없더니 세 신인이 처음으로 한라산 북녘 기슭 광양의 땅 모흥혈에서 나왔다. (제주에서 남녘으로 3리쯤에 있으니 혹 말하기를 「모」(毛)자는 「울」(乙)위에 「삼」(三)을 더한 것이므로 이는 세울나가 일어난 혈(穴)이라 하여 「모흥혈」이라 함이다) 만을 「양울나」라 하였고 버금에 「고울나」라 하였으며 세째를 「부울나」(혹「울」(乙)은 「울두」(乙頭)「울파」(乙巴) 따위이며, 「나」(那)는 「거서나」(居西那) 따위의 임금을 높여 부르는 칭호이며, 또한 「울나」(乙那)는 신라의 「혁거세」(赫居世)의 칭호 같은 것이니 모두가 향연으로는 임금이다. 이하략) 세 사람은 거친 들판에서 사냥을 하였으며,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었는데 하루는 자주빛 진흙으로 봉해진 목함(木函)이 동쪽바닷가에 떠밀려 왔음을 발견하게 되어(세상에 전래오기를 삼울나가 나라를 열때에 「벽랑국」 사자가 세 신녀를 받들고 「연혼포」에 배를 대었으니 지금의 「정의현」 「열운리」가 이곳이다.) 나아가 이를 열었더니 안에 석함이 있고 붉은 띠를 두루고 자주빛 옷을 입은 사자가 따라와 있다가 함을 여니 파랑옷을 입은 처녀 세사람과 망아지 송아지 오곡의 씨앗이 있었다. 이에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곧 벽랑국의 사자입니다. (지지(地志)에는 일본국사로 되어 있다) 우리 임금께서 아세 따님을 낳으시고 서쪽바다 가운데 있는 높은 산기슭에 신자(神子) 세사람이 내려오시고 바야흐로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으시다 이르시고 신(臣)에게 명하셨으므로 이 세 따님을 모시고 왔사오니 마땅히 배필을 삼으시고 썩 큰 일을 이루소서」 이렇게 말하고나서 갑자기 구름을 타고 떠나 버렸다. 세 사람은 나이의 차이에 따라 나누어 장가들고 샘물이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점치었으니 (삼사석은 제주에서 동쪽 10리쯤에 있다. 주략) 「양울나」가 거처한 곳은 「계일

도」라 하였고 「고을나」가 거처한 곳은 「제이도」라 하였으며, 「부올나」가 거처한 곳은 「제삼도」(주략)라 하였다. 비로소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소와 말을 길러 날로 부서를 이루었더니라.

(原文, 厥初無人物 三神人首出干漢孛山北麓廣壤地毛興穴(在州南三里或曰毛字乙上加三故指三乙那所興之穴曰毛興穴)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或曰乙如乙豆乙巴之類 那如居西那之類尊君之稱又曰乙那如新羅赫居世之稱蓋鄉言王也○宋尤菴時烈曰三神人降干耽羅之漢孛山分長一島至新羅改良爲梁○金楓臯祖淳曰 良乙那生干漢孛山石窟中與檀君同時開國其後曰宥始通新羅○地志曰三姓之出正當九韓之時○擇里誌○曰漢明帝永平八年乙丑紫氣浮於南溟三姓之出疑其時與次○高氏家譜曰三神湧出在漢宜帝五鳳二年乙丑) 三人遊獵荒僻皮衣肉食 一日見紫泥封木函 浮來東海濱(世傳三乙那開國時碧浪國使者奉三神女來泊延婚浦今旌義閣雲里是也) 就而開之內有石函有紅帶紫衣使者隨來 開函有青衣處女三人及諸駒糶五穀種 乃曰我是碧浪國使也(地志作日本國使)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嶽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而來 宜作配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歲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射矢卜地(三射石在州東十里州人梁宗昌作石室以藏之 牧使金(政銘曰毛興穴古矢射石留神人異蹟交映千秋) 良乙那所居曰第一徒(史作都下并同) 高乙那所居曰第二徒 夫乙那所居曰第三徒(三姓分占三徒倣北斗形築石垣而據之故州城內有七星圖) 始播五穀日牧駒糶日就富庶 下略)

삼성의 시조인 세 을나가 세 왕녀를 맞아 혼례를 올린 곳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다른 기록에서는 <동쪽바닷가>(東海濱)라고만 되어 있을뿐 그 구체적으로는 어디라고 지적함이 없었음에도 이 「탐라기년」에서는 그 「동쪽바닷가」에 대한 주(註)로서 그 곳은 「연혼포」(延婚浦) 요 정의현(旌義縣)의 「열운리」(閱雲里)라고 밝혀 놓은 것이다.

서기 1933년에 김두봉(金斗奉)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탐라지」(耽羅誌)가 편찬 되었으니 이것은 「이원진 탐라지」나 「탐라기년」을 참조하여 엮어진 듯 하다.

여기에서의 「삼성신화」는 「이원진 탐라지」의 기록과 같다.

(原文, 三姓穴 在州南三里即古毛興穴 高麗史古記云 厥初無人物 三神人從地湧出 今嶺山北麓有穴曰毛興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 皮衣肉食 一日見紫泥封木函浮至東海濱 就而開之內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函有青衣處女三人及龍駒犢五穀種 乃曰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嶽 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而來 宜作配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歲次分娶之下略)

이 「김두봉 탐라지」에는 정의현(旌義縣)의 「고적」으로서 「은평리」에 관한 기록이 보이는 바

연흔포, 일명 열운리라고도 한다. 현의 동쪽 20리쯤에 있으니 삼을나가 개국할 때에 일본 사자가 삼신녀를 모시고 와서 여기에 배를 대었기로 생긴 이름이다.

(原文, 延婚浦 一名 閔雲 在縣東二十里 三乙那開國時 日本使者陪三神女來泊于此故名)

이어 수전소(水戰所)로서의 「열운포」에 관한 기록이 보이니 내용은 「이원진 탐라지」와 한가지다.

(原文, 閔雲浦 在縣東二十里 有板屋戰船一隻 待變糧一石 射格并八十五名 本所舊在五照浦 今移此浦)

「김두봉 탐라지」를 펴낸 직후, 곧 서기 1935년에 이병연(李秉延)에 의하여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이 편찬되었는데 거기에 삼성신화가 수록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동국여지승람」이나 「이원진 탐라지」의 그것과 한가지이다.

(原文, 高麗史古記云 厥初無人物 三神人從地湧出 今嶺山北麓有穴曰毛興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皮衣肉食 一

日見紫泥封木函 浮至東海濱 就而開之 內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開函 有青衣處女三人及諸駒犢五穀種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嶽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 命臣侍三女而來 宜作配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歲次分娶之 下略)

서기 1954년에 김문희(金汶熙) 김범준(金範竣)등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담수계」(淡水契)에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를 편찬하였으니 문체는 국한문 혼용체(國漢文混用體)로서 출간되었다.

여기 「연혁」(沿革)조에 보면 삼성신화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原文)

厥初에 人物이 無하더니 三神이 漢拏山北麓廣壤地에 臨降하야 長을 良乙那(宋尤庵時烈이 云하되 三神人이 漢拏山에 降하야 一島를 分長하고 新羅國에 至하야 長을 改하야 梁이라 하다 金楓阜韻藻이 云하되 良乙那가 濟州漢拏山에 生하야 檀君과 同時에 開國하니 그 後는 梁이다. 新羅에 始遷하야 梁이라 改稱하라) 次는 高乙那 三은 夫乙那(乙은 乙豆 乙巴와 같고, 那는 居西那와 같으니 尊君의 稱이다)라 하다. 三神人이 날마다 遊獵하야 皮를 衣하며 肉을 食하더니 一日에 紫泥로 封한 木函이 東海濱에 浮來함을 見하고 (世傳에 三乙那開國時에 碧浪國使者가 三神女를 모시고 延婚浦에 來詣하였다 云하니 延婚浦는 城山面 閔雲里 即 溫平里라) 函을 開하니 內에 石函이 有하고 紅帶使者가 隨來하였는지라 다시 石函을 開하니 青衣處女三人과 駒犢 및 五穀種子가 有한지라 使者가 云하되 나는 碧浪國使者라. 吾王이 이 三女를 生하고 云하되 西海中에 神子三人이 降生하여 將次開國코자 하나 配匹이 無하다하고 이에 臣을 命하야 三女를 모시고 來하였으니 마땅히 配匹을 삼아 쟈 大業을 成하라 하고 使者는 白雲을 乘하야 去하였다. 三人이 年수의 順으로써 分娶하고 泉甘하고 土肥한 處에 就하야 射矢하고 卜地하니 良乙那 所居는 第一徒요 (與地勝覽에 徒를 都라고 하였다 下同) 高乙那 所居는 第二徒요 夫乙那 所居는 第三徒니 此가 本農民의 祖先이라. 이어 五穀을 播하고 또 駒犢을 牧하니 날로

繁殖하다.

이 기록은 「탐라기년」의 내용 그대로 입을 알 수 있다. 한문체로 되어 있는 삼성신화를 국한문혼용체로 바꾸었을 뿐이고, 여기 「명소고적」조에는 다시 「연혼포」에 관한 기록이 있다. 곧

(原文) 延婚浦 城山面 温平里에 在하니 三乙那開國時에 日本使者가 三神女를 陪하고 來泊한 處라

이 기록도 「탐라기년」의 기록과 같다.

「편례초」(編禮抄, 편자와 편찬연대미상)에는 「삼성사적」이라 하여 삼성신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있다.

삼성혈은 제주의 남쪽 3리쯤이 되는 광양연무정(지금은 없음) 동쪽에 있다. 품(品)자 모양으로 북쪽을 향해있는데 삼성이 나왔음이 정당하다. 구한(九韓)때의 일이니, 곧 후한(後漢) 명제 영평 8년에 자주빛 기운이 남쪽바다에 뗏었는데 그때에 삼성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그때의 나라 이름을 「타라」(毛羅)라 하였고, 신라때에는 「탐라」(耽羅)라 하였으며, 백제때에는 「탐모라」(耽牟羅)라 일컬었던 것이니, 본조에 와서 비로소 「제주」라한 것이다. 킬초에는 사람이 없었다가 세 신인이 땅에서 솟아났으니 말이 「양을나」요 버금이 「고을나」이며, 새재가 「부을나」라 세 사람은 거친 돌판에서 사냥을 하며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었다.

하루는 자주빛 진흙으로 봉해진 목함이 동쪽바다로부터 떠밀려와서 「금당」인 지금의 「조천포」 바닷가에 이르렀는지라 나아가 이를 열었더니 적함이 있고, 붉은 띠를 두르고 자주빛 옷을입은 처녀 세사람과 망아지 송아지 그리고 오곡의 씨앗이 있었다. 이에 말하기를 「나는 동쪽바다 벽탕국의 사자이다. 우리 임금께서 이 세 따님을 낳으시고 이르시기를 서쪽바다 산허리에 신자 세 사람이 탄강하셔서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다 하시고 이에 신에게 명하시어 이 세 따님을 모시고 왔사오니, 마땅히 짝을 지으시고 큰일을 이루소서」하고는 갑자기 구름을 타고 가버렸

다. 세 사람은 나이의 차례로 이를 나누어 잠가들고, 샘물이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땅을 접치었으니, 「양을나」가 거처한 곳은 「일도」요, 「고을나」가 거처한 곳은 「이도」이며, 「부을나」가 거처한 곳은 「삼도」라.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땅아지 송아지를 길렀으니 날로 부서를 이루더라.

(原文, 三姓穴 在州南三里廣瓊演武亭今無東品字向北 蓋三姓之出正當 九韓之時 後漢明帝永平八年 紫氣浮於南海 三姓之出疑其時 國號毛羅 新羅時稱耽羅 百濟時稱耽牟羅 本朝獻國時稱濟州 厥初無人物 三神人從地湧出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皮衣肉食 一日見紫泥封木函自東海至濱出置金塘今朝天浦就而開之 內有石函 有紅帶紫衣使者隨來開之 有青衣處女三人及諸駒犢五穀種乃云 我東海碧浪國使者也 吾王生此女云 西海中嶽 降神子三人 將欲隗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而來 宜作配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年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一徙 高乙那所居曰二徙 夫乙那所居曰三徙 播五穀牧駒犢 日就富庶)

「편례초」의 이 기록은 다른 문헌의 기록과 대동함을 볼 수 있으나 다만 세 왕녀가 떠밀려와서 세 을나와 혼인을 한 곳이 성산면의 「연혼포」(延婚浦) 곧 「운평리」가 아니라 「금당」(金塘) 곧 「조천포」라는 것이다.

이 <조천혼인지 (婚媿趾)> 설은 문헌상으로는 다시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한계삼을 필요도 없다고 하겠으나 <금당 지금의 조천포(金塘今朝天浦)>라는 기록과 더불어 오늘의 조천리에 <금당돛>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제주도 무속신화에는 삼성신화에 있어서 삼을나와 혼인한 「벽랑국」 왕녀와 대조해 볼만한 이야기로써 명나라 명천자의 손딸 세형제가 난리에 쫓겨 본도에 귀양 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세 여자는 <정중부인> <관사전 부인> <명오부인>이고 「운평」의 무속신화에 따르는 「열운이」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말의 <정중부인>이

「조천관 앞선도」로 버금의 「집념」으로 세계가 「얼음이 고장남함」으로 좌경했다는 것은 이 세부인의 「조천포」상특설을 추정해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금당 혼인지설〉(金塘婚姻趾說)도 무슨 연유가 있을법 하니 이는 후코에 미루기로 한다.

위에서 필자는 제주도의 개국신화요, 오늘날의 고씨 부씨 양씨의 세조인 세울나가 땅에서 솟아나온 이야기로 부터 동쪽바닷가에서 세 왕녀를 맞아 혼인한 이야기와 화살을 쏘아 거처할 곳을 마련하여 정착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신화를 문헌에 따라 살펴 보았다.

위에서 조사 인용하기는 「이원진 탐라지」 「동국여지승람」 「동국통감」 「해동역사」 「탐라기년」 「김두봉 탐라지」 「조선환여승람」 「증보탐라지」 「담수계 탐라지」 「편례초」 등 여러가지 문헌의 기록에서 그 내용이 비록 서로 같은 것이면서도 일일이 인용하여 밝혔다. 번잡을 무릅쓰면서도 이렇게 지루하게 인용한 것은 삼성신화에 관한한 벌써 정확화되어 있어서 거의 이설(異說)이 없음을 보이기 위함이다.

위의 문헌 이외에 「조선연구회」에서 펴낸 「조선사천년사」(朝鮮四千年史)나 「진단학회」(震檀學會)에서 펴낸 「한국사」(韓國史) 등의 역사서에도 삼성신화가 수록되어 있으며, 「대동씨족고」(大東氏族攷)나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 등 성씨보에도 고기를 인용한 삼성신화가 단편적으로 나타나 있거니와 그 어느 기록을 보더라도 제주도의 개국신인인 삼울나에 관한 출생에서 방랑의 유렵생활, 혼인, 정착생활등 네단계에 대해서는 거의 공통된 내용이다. 곧

(1) 출생, 세 울나는 삼성혈(모홍굴)에서 솟아났다. (탄강했다)

(2) 혼인전의 방랑생활

사냥을 하면서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어 살았다. (수렵생활)

(3) 혼인, 동쪽 바닷가에 떠밀려온 세왕녀를 맞아 나이 차이에 따라 장가

들었다.

(4) 정착생활

샘물 좋고 기름진 땅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지를 마련했다.

농목생활을 시작하였다.

위에 보인 바와 같이 생활의 네 단계에 대해서는 공통하다 하겠으나 다소 다른 것도 전혀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출생방법. 세 왕녀가 올라온 바닷가. 그리고 세 왕녀를 보내온 나라의 이름에 다소 다름이 있고, 세 왕녀가 [올라온 바닷가가 어느 마을의 바닷가라고 지적되고 있는 문헌과 그것이 없는 것] 과가 있다.

이를 표로 만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출 전	출생 방법	세왕녀를 낸 나라	왕녀가올라온곳	비 고
이원진 탐라사	從地湧出	日本國	東海濱	
동국여지승람	從地湧出	日本國	東海濱	
동국통감	從地湧出	○	(出獵)海濱	
해동역사	從地湧出	○	(出獵)海濱	
탐라기년	首出于毛興穴	碧浪國	東海濱延婚浦(閔雲里)	
김부흥 탐라지	從地湧出	日本國	東海濱延婚浦(閔震里)	
조선한여승람	從地湧出	日本國	東海濱	
증보 탐라지	誕 降	碧浪國	東海濱延婚浦(溇平里)	
편력초	從地湧出	碧浪國	自東海至濱金塘(朝天浦)	
조선사친년사	從地湧出	○	(出獵)海濱	
한국사	從地湧出	日本國	東海濱	
대동외족고	從此錄出	○	○	
만성대동보	首出于毛興穴	碧浪國	浮至而海	

위 일람표에서 보건데 출생에 관해서는 「중지용출」이 대부분인데, 「수출우모총혈」이나 「탄강도」 있긴 하나 결국 지금의 「삼성혈」에서 솟아났다고 하는 점에서 통일되고 있다. 다음 세 공주를 보내온 나라가 「일본국」과 「백랑국」 두 이름이 있지만, 이 삼성신화가 하나의 전설이기에 「백

랑국」은 「바다의 나라」란 뜻일 것이요 그렇다면 「일본국」이라 생각해 들
도 무방할듯 하다. 다만 세 공주가 올라와서 삼을나와 결혼한 곳이 막연
히 「바닷가」(海濱)로 되있는 것이 12중 4이요 「동쪽」바닷가」(東海濱)로
되있는 것이 8로 절대로 많은데 구체적인 마을은 지적하기는 탐라기년」
과 「김두봉 탐라지」 「증보탐라지」등 제주에서 엮어진 세 문헌임을 알겠
다. 다만 「편례초」의 기록이 그 혼인지(婚媾趾)가 초천(朝天)임을 말
하고 있으나 이는 무속(巫俗)에서 말하는 세 외래여신(外來女神)인 「정
중부인」 「관사전부인」 「명호부인」 중 말이 되는 「정중부인」이 「초천관앞
선도」에 좌정하였다는 설과 결부시켜 후고를 기다리기로 하고 여기에서
는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

3. 온평리(溫平里)에 전승되는 이야기

「남제주군 성산면 온평리」는 그 마을의 이름처럼 인정이 따스하고 평화
로운 마을이다. 동백나무를 비롯한 상록수의 노목들이 깊숙히 옥여져
서 어딘지 모르게 깊은 역사를 간직한 유서깊은 마을임을 느끼게 한다.

이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이 「온평리」 마을은 제주도의 개국신인 세을
나(乙那) 과 동쪽바다에서 건너온 세 공주를 마지하여 혼인을 한 곳이라
믿고 있다.

이 「온평리」 마을의 이장 송인홍(宋仁洪)씨는 「온평리」에 있는 「혼인
지」에 얽힌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을나」 「부을나」 「양을나」 세 신이 해안을 따라 사냥을 하며 이동
하던중 「온평리」에 있는 속칭 「화성개」에 이르렀을 때, 물결에 떠밀려
오는 세계의 꾀작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은 「고을나」가 먼저 발견하고,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세 신이 모여
바라보니 과연 꾀작이 떠밀려 오고 있지 않은가.

이 때 세 신이 유쾌함 소리를 질렀다고 하여 이 곳을 「화성개」 또는
「쾌정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 궤짝은 「화성개」에서 한 100미터쯤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 닿았는데 세 신인은 그 궤짝을 따다가 이를 열어 보니 세 선녀와 오곡의 씨앗, 그리고 가축등이 있었는데, 그때가 마치 저녁무렵이라 석양이 바닷물에 비쳐 황금빛 노을이 출렁이때 이 궤짝이 닿은 바닷가를 「황노알」(黃老瀾)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는데, 오늘날의 이름은 그 「황노알」이 줄어 면지서 「황날」이라고 부르고 있다.

세 신인은 말을 타고 세 처녀와 더불어 「삼성혈」이 있는 제주도 쪽으로 떠나는데, (그때 바위 위에 적혀진 달 발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함) 「황노알」을 떠난 일행은 바닷가에서 한 1킬로쯤 떨어져 있는 곳에 수목이 울창하고 큰 못이 있어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에 당도하게 되니, 이곳에서 말을 내리 못에서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한 다음에, 이곳에서 혼인을 하니, 이제 날은 어두워지고 이 못가의 굴에서 밤을 지냈다고 한다.

이래서 이 못은 세 을나와 세 처녀가 혼인을 했던 못이라 하여 「혼인지」(婚姻池) 또는, 혼인을 했던 자리라 하여 「혼인지」(婚姻趾)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 세 신인 부부는 초야를 보낸 이궤(굴)에서 얼마쯤 살게 되었다. 그들은 가까이 있는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다 먹고 하였는데, 이 바닷가를 「연혼포」(緣婚浦, 宴婚隄)라 부르게 되었으며, 세 신인은 여기에 살면서 나무에 오르기와 활쏘기 등으로 재주를 겨루어 형제의 순위를 껴었다고 한다.

위의 이야기 가운데서 「화성개」에 이르렀을때 물결에 떠밀려오는 <세계의 궤짝>을 발견하였다고 하는 것은 문헌 기록으로는 <하나의 궤짝>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 <세계>라는 것은 전승자의 잘못인가 아니면, 그 곳에는 보편적으로 그 처럼 <세계>로 전승되고 있는지 채 확인을 못하였으며, 「혼인지」 못가에서 <나무에 오르기>와 <활쏘기>등 재주로 형제의 순위를 정하였다고 하나, 이 <형제 순위>에 대해서는 문헌의 기록상으로는 <땅에서 솟아날 때> 이미 매겨진 것이니, 이 「혼인지」에서 재주를 겨루어 형제 순위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전후가 맞지 않다고도 보아

진다.

그러면 이 「온평리」의 설촌(設村)의 시기와 그 역사는 어떠한가.

현 「온평리」의 이장 송인홍(宋仁洪)씨는 이 마을에 전해오는 설화와 고로(古老)들의 말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지금부터 약 300년 전 구「열혼」경에 고(高)씨 약 10가구「고인돌」(편돌)에 이(李) 강(康)씨, 약 10가구 「달려수」(連礪水)에 송(宋), 현(玄)씨 약 10가구, 「달개」(月浦)에 강(康)씨 약 3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난리가 일어날 때 등 서로 더 큰 집단으로 살아야될 필요성을 느껴 한곳으로 이주해 오면서 「연혼리」(緣婚里, 冥婚里)라 칭하게된 것이 약 270년 전인데, 이를 발음에 편리하도록 「열혼리」 또는 「열운이」라 부르게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오늘의 행정부락의 이명으로 되어 있는 「온평리」(溫平里)란 이름은 지금부터 약 70년전, 처음으로 호적부를 작성하게 되면서 부르게된 이름이다.

지금의 「온평리」의 고명이 「열운이」라는 것은 문헌의 기록으로도 나와 있을뿐 아니라 오늘의 속명으로도 이 「열운이」가 그대로 불리워지고 있다.

오늘 「온평리」의 부녀자들은 「온평리」라는 이름 보다는 「열운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전기 송인홍씨의 진술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전에 약 10가구씩의 작은 마을이 있었던 것이 약 270년 전에 한곳으로 모아지면서, 「열운이」라고 불리워 졌다고 하나 이, 진술은 문헌의 기록과도 크게 어긋남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골 「이원진 탐라지」가 1653년에 편찬된 것이라면 지금으로부터 317년전의 일이 되는 것인데, 이 문헌에 벌써 「열운포」라는 이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골, 동 「탐라지」 정의현(旌義縣) 수선포(水戰所) 조에

「열운포」 현의 동쪽 20리쯤에 있으며, 관옥전선 1척, 대변량 1척, 사

격병 85명. 본소는 전에 오조포에 있었던 것을 지금에 이 포로 옮겨온 것이다.

(原文, 閱雲浦 在縣東二十里 有板屋戰船一隻 待變糧一石 射格并八十五名 本所舊佐五照浦今移此浦 前出)

이와 같이 「열운포」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 이 음의 한자표기도 「閱雲補」로 되어 있다

다음〈연혼포〉라는 이름은 서기 1918년에 편찬된 <탐라기년>에 보이고 있는바 그것은 삼성신화중 세 왕녀가 표작했다는 「동해빈」(東海濱)의 주(注)로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전해 오기를 세 을나가 나라를 열대에 「벽랑국」 사자가 세 신녀를 받들고 「연혼포」에 배를 대었으니 지금의 「정의현 열운리」가 이곳이라.

(原文, 世傳 三乙那開國時 碧浪國使者 奉三神女 來泊延婚浦 今旌義閱雲里是也)

이 기록으로는 오늘의 「온평리」의 옛 이름으로는 320년전의 「탐라지」에 「열운이」「閱雲里」가 보이고, 50여년전의 「탐라기년」에 처음으로 「연혼리」가 보이지만, 「탐라기년」에는 이 두 이름이 동시에 올라있고, 기록된 뜻으로는 다시 「연혼리」의 이름이 앞선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 두 이름은 한자(漢字)표기만 달랐을뿐 원래는 같은 뜻, 같은 음인 것이며, 이 두 이름의 근본은 세 신인과 세 신녀와의 연혼설화에서 유래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4. 무속적인 해석

문화의 단계가 고대로 또는 원시사회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것이 원시 신앙형태와 상통하게 된다고 함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탐라의 개국신화인 삼성신화에 대해서도 무속학적 해석을 시도한 학자로는 장주근(張維根)교수와 현용준(玄容駿)교수를 들 수 있다.

장주근교수는 일찌기 「삼성신화 해석의 한 시도」라는 논문에서 삼성신화는 무가(巫歌)에서 온 것임을 논단하였다.

장주근교수의 이 학설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현용준교수는 먼저 무속에 있어서의 당신화(堂神話)와 삼성신화와의 신화 발생의 모티브를 비교 연구하고, 삼성신화는 본래 무가였던 것인데, 이 신화의 시조신에 대한 숭배 사상은 유교적 조상숭배 도덕의 영향을 받아 관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 계의가 유식화(儒式化)하는 한편, 신화는 씨족의 세력에 힘입어 개국신화로 까지 변모해간 것이라고 하였다.

현용준교수의 이러한 해석은 신화해석의 방법론에 있어서 경청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에 관한 연구발표는 1964년 3월에 학술연구 발표회를 통하여 주장한 바 있고, 동년 6월 「제주도」지 14호에서 다시 상술하고 있다.

그는 장주근교수와 마찬가지로 삼성신화를 본향단신화와 동일체의 무가에서 연원되었음을 추정하고, 여기 「성산면 운평리」에서의 「벽랑국왕녀와의 혼인설화」는 송당계 무가에 나오는 「동해용왕녀」와의 혼인설화와 동귀임을 밝히고 있다. 흥미로운 대조임을 수긍케한다.

여기 삼성신화를 다시 번거롭게 인용해 낼 필요도 없이 제주도의 개국신과 혼인을 함으로써 제주도 최초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세 왕녀를 보내온 곳은 「고려사」나 「동국여지승람」에는 「일본국」으로 되어 있으나, 「탐라기년」이나 「증보탐라지」에는 「벽랑국」으로 되어 있다.

이 두 나라 이름 중에서 원형은 「벽랑국」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벽랑국」이란 나라가 실제했던 나라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오늘의 어뎌인지를 확정지을 수는 없는 일로되, 「벽랑국」이란 한자어의와 음의 근사치를 따져 볼때 그것은 「바다의 나라」이기에 이는 「고려사」나 「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상통하는 「일본국」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한편, 이 「바다의 나라」란 것을 다시 무속적으로 추정할때, 이는 「용왕국」이 될 것이요, 이래서 삼성신화에 있어서의 「벽랑국의 세 왕녀」 설화는 송당계 무속신화에 있어서 이 「동해용왕의 세왕녀」와 대조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송당계 무속신화에 보면, 서울 남산에서 솟아난 <임정국 따님>인 <백주 할망>이 송당의 <소로소천국>을 찾아와서 부부가 되고, 그 여덟째 아들이 일곱살이 되었을때,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어리광을 부리면서 아버지의 무릎을 때리고 수업을 뽑고 함으로써 아버지의 노여움을 샀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불효라 하여, 석좌(石匣)에 담아 유배시켜 버렸으니, 이는 동해 용왕국에 이르러 용왕의 세 왕녀와 만나게 되고, 거기서 결혼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 용왕국 세 왕녀와 삼성신화의 벽랑국 세 왕녀를 견주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요, 여기에도 해로(海路) 용왕국행의 수단이 「석좌」에 실려갔음이 삼성신화의 세 왕녀의 해로 입국수단과 동케인데, 다만 무속신화에 있어서는 세 왕녀는 용왕국에 있고 남선이 석좌에 타서 떠밀려가 산 호수에 걸림으로써 왕녀에게 발견 되었음에 반하여, 삼성신화에 있어서는 세 왕녀가 석함에 실리어 제주도 동쪽바닷가에 떠밀려 와서, 세 남신인 삼을나에게 발견 되었음이 다르다.

위의 무속신화는 다시 토산일렛당계의 무속신화에서도 대동하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당신화는 제주도의 무속신화의 한 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삼성신화에서 삼을나와 혼인한 「벽랑국」의 세 왕녀가 올라왔다는 「운명리」에는 다시 세 여신이 올라왔다는 무속신화가 있어, 삼성신화와 비추어 볼때 흥미롭다.

현 「운명리」의 이장 송인홍(宋仁洪)씨는 이 외래 여신에 관한 이야기를 조사하고 다음과 같이 진술해 주고 있다.

아득한 옛날에 전남 나주<회영산>으로부터 세 부인이 본도에 건너 왔는

때, 그것은 <정종부인> <맹오부인> <이주부인>이었다.

<정종부인>은 「조천」에 <이주부인>은 「김녕」에 <맹오부인>은 「은평」에 거주하게 되었다. 「은평」거주 <맹오부인>에 <문성국>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7세 때 애만 홀로 늙혀두고 어머니인 「맹오부인」이 풀을 길러 간 사이에 <문성국>은 잠을 깨고 어머니를 찾아나선 것이, 그만 바다물에 빠져 14일만에 속칭 「개알 용머리」로 나왔다. 그때 <문성국>의 한손에는 유리잔을, 한손에는 금책(金冊)과 금붓등을 가지고 살아 나왔다. 그 당시는 각종 난리동이 일어나 어수선한 때라 본리 백성들의 안심입명을 빌기 위하여 자기 어머니인 <맹오부인>의 머리털을 잘라 굶을 하며 모든 화를 방지하였는데, 그가 돌아가자 본리를 지키는 수호신격으로 숭상을 받게 되고, 그 영혼을 모시게 되었다.

지금도 당사에는 그 당시 <문씨영감>이 굶을 할때 어머니의 머리털을 잘은 머리달래가 보관중이고, 문씨영감이 썼던 무쇠갓은 현재는 행방불명이며, <문씨영감>의 묘는 <멧산이곡>에 있다.

송씨의 이 전술은 전남나주 <허영산>으로부터 본도에 세 부인이 왔다는 것과, 이 세 부인중의 한 사람인 <맹오부인>과 그 아들 <문성국> <문씨영감>이 본리 당사(한집)로 모시게된 유래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면 은평본향의 무속신화(본풀이)는 어떠한가 진성기(秦聖麒)씨편 남국의 무가]에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열문의 맹오부인은, 대국명나라 명천주의 손 딸 삼형제가 잘나서 여적에 물려드러 구앙을 보내여, 배를 지어놓고 죽으라고 내쫓아, 들물 나린동외와당 들곡, 산물나린 서외와당 들곡 땡기다가 들곳이 없어서 제주시는 내와당 켜여지고, 화북본향 신촌칠모르, 조천 정중당, 함덕 급소황 하늘, 부풍리 감낭하르방, 동부리 XX, 김녕 피너깃도시 켜여 그질로 들지 못하여, 월정 남당칠모르가 켜고, 또 행원 용주부인XX, 한동 개관칠모르, 팽대 야방왕은 강안도, 어명왕은 철산도(수데깃도.)

용제부인, 서화리 정승이빌레, 송씨할망 세부인 합에 돌만 일곱개를 도
리고 수네기도로 간, 그디 좌정하난 먹을 수가 없으니깐 단골을 추자보
니 먹은건 없고, 팡이나 트더 보자고, 도새기 잡안 아강발로만 트더먹
언, 서화릿 천조백조. 금상 군수 하도 강진 부산 땅 도절릉에 도집수 삼
성불또, 상도 막음출, 두붕다리, 서다리, 초일되, 예릴되, 상을 받던
조상, 종달리 안카름 금부 노상주, 심똥 큰물머리, 천신 백판또, 오조
리 죽지일되, 수산 하로산, 우도 우두목지, 좌두목지, 장하르방 장할망
성산 황바도리 질통정 집상수, 신양 해신요왕또, 삼달 황서국서 어마장
군, 신천 선씨일월, 신풍 개로육섯또, 폐선 문국성 상오부름우, 서서와
문국성 금백 세명조

〈온평리 남무 한기신술〉

위의 본풀이에 보이는 사설을 보건데 「온평본향」에 좌정한 <명오부인
의 내력담이 말해지고 있는데, <명오부인>은 대국 명나라 명천자의 손의
딸 삼형제가 역적에 물려 유배를 당하여 갖은 풍파를 이겨내며 제주까지
왔는데, 제주시로부터 성산면 온평리까지의 모든 당, 곧 제주시의 「내왔
당」으로부터 시작하여 화북, 신촌, 조천, 함덕, 부중(?), 동북, 김녕,
월정, 행원, 한동, 평내, 새화, 하도, 상도, 종달, 오조, 수산, 우도, 성
산, 신양, 삼달, 신천, 신풍등의 모든 당을 서쪽에서 부터 해안을 따라
동쪽을 향해 돌아가면서 좌정할 곳을 찾았으나 모두가 세어서 좌정할 수
가 없었고, 이로서 세 부인은 「온평」에 까지 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이 사설은 <명오부인>에 대한 내력담이고 그러면 송인홍씨가 조사한바
있는 <문성극>의 내력은 어떠한가, 이에 관한 「온평본향」의 무속 신화는 다
음과 같다.

명오부인님은 본향이고 문씨영감은 경신내, 명오부인님이 이세상을
돌아가니 문씨영감이 「보름으로 좌정하라, 장정도 추지하고, 호적도 추

지하고, 만민단골을 다 추지하라]. 문씨영감이 일곱살 나도록 구덕밖에서 나오지 못하여서, 옛날 어머니가 호년죽을 물을 먹울때, 애길 죽겨 두고 간 오고보니 애기가 간디옵서, 이 애길 찾을라고 사흘 상위를 불러도 못찾고, 일퇴를 불러도 못찾고 시월초일렛날 돌지기에 개업 용머리로 산시될 흑도절립을 켜고, 혼착손엔 유리잔, 혼착손엔 유리대에, 일월 삼형제 둘러받아, 한집에 거영을 하였읍니다. 하니, 「불쌍하다 보름으로 드러사라」 장적추지 혼뒤에 이 세상을 들어가니 「그대로 무실할 수 읍다」 하여 온평리 이민이 보름옷또로 좋은 자리로 모셨읍니다. 가지는 최씨로 갈라가고, 그 다음은 무후하고 없읍니다.

〈온평리 남부 한기신 술〉

이 사실에서는 〈문국성〉 곧 〈문씨영감〉의 행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바 〈문국성〉이 7살때에 간곳없이 실종되었다가 (14일만에) 속칭 개업 용머리로 나타났는데, 한손엔 유리잔, 한손엔 유리대에 일월삼형제 (무신으로써의 자격)를 받고 나와 장적을 차지하고, 사람들이 〈바람옷또〉로 모시는 바 되어 당신(堂神)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바다에서 나온 날이 〈시월 초일렛날 돌지기〉 무렵이었으니 「온평리」 당사(한집) 제일을 보면. 1월 2일. 정월포제, 2월 3일 영등제 7월 7일 마팔림, 10월 7일 대제일, 곧 바다에서 나왔다는 날이 대제일이 되고 있음을 안다.

〈명호부인〉의 무속신화에서 「대국 명나라 명천자의 손 딸 삼형제가 제주도로 들어왔다면 〈명호부인〉은 「온평」에 좌정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남어지는 어찌로 좌정하였으며, 그 이름은 또한 각각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려면 김녕리 「김녕본향」의 「큰당」에서 불리어지는 무속신화를 보면 알 수 있다. 곧

강남 천주국 정주국 안카름서 삼형제가 솟아나, 제주에 입도하여 큰성님은 조천관 앞선도 〈정중부인〉이고, 족은 아신 열분이 고장남발 〈명호부인〉이고, 셋성님은 집녕 〈관사전부인〉 개사된 부인, 하늘 공주 소공주 금

배릿물 떠다 안음 고득 금책이요, 좁이 바른 금붓대 일천장 배릿돌, 삼천상 먹골러, 나는 날은 생산추지, 죽는 날은 물구추지, 저성은 장작과, 이성은 호적과 인물도 생척 추지 흥신 큰당한집, 삼진 정월 열사흠 열나흘날 개탁제일 정칠월 열나흘날 마불림제일 칠구월 열사흠 열나흘날, 사만국 대제일 받아 잡수는 큰당 한집남

〈제주시 건입동 남무 이달춘술〉

이 사설에 의하면 「온평본향」의 사설에 나왔던 〈명오부인〉의 형제는 말이 〈성중부인〉, 버금이 〈관사전부인〉 세째가 〈명오부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온평본향」의 본풀이와 「김녕본향」의 본풀이에서 서로 어긋나는 점은, 전자에서는 세 여신은 〈대국 명나라 명천자의 손 딸 삼형제〉인 것이 후자에게 와서는 〈강남 천자국 정자국 안카름〉에서 태어난 것으로 말해지고 있으며, 왕족임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 「김녕본향」의 본풀이 신화는 세형제의 외래여무신(外來女巫神)의 순위와 좌정지를 밝혀 왔는데 가치가 있다고 하겠거니와, 그러면 첫째의 무신인 「조천관앞선도 정중부인」에 관한 사설이 조천본향에서는 어떻게 말해지고 있는가.

정중부인 정중아미, 서울 먹장골서 솟아난 정중도령, 우리나라 국마진상 바칠 때, 조천수진포로 조마 진상 바칩니다. 군마 진상을 바치레갈 때에 도야지 잡아서 당고수와 배고수를 하여야 배 파산을 아니 시기고, 고수를 아니하면 배파산을 합니다. 이 당은 정중발 정중풀이 있어서 그 말더 살며 이물을 먹었습니다.

〈조천면 조천리 남무 정주병술〉

이것은 「조천본향」의 본풀이 신화이거나 「김녕본향」의 본풀이에서 말해지고 있는 세 외래 여무신중의 말이 되는 〈정중부인〉은 나와 있으나, 그 내력담이 아주 다르다.

곧 <명소부인>이 좌정한 [은평본향]의 본풀이에서는 <대국 명나라 명천 좌의 손 딸 삼형제>로 되어 있는 것이, <관사전부인>이 좌정한 [김녕본향]에서는 <강남 천제국 정자국 안카름서 태어난 삼형제>로 되어 있어 전후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의 중국땅에서 건너온 삼형제>라는 점은 공통인데다 이 [조천본향]의 본풀이 신화에서는 <정중부인 정중아미, 서울 먹장골서 솟아난 정중도령>이라고 한것은, 이는 신앙의 큰대상이 무신(巫神)도 문제가 되려니와 그 내력담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다,

제주도 무속신앙에 있어서 『서울 먹장골』서 솟아난 무신들이 없는 것은 아니로되, 그 무신들이란 대개 『도체비 귀신』임을 생각할 때, 앞의 『조천본향』의 당신화는 전승과정에서 와전 되었거나, 이 당신화를 진술할 정주병 여무의 오착에서 온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요는, 삼성신화에서 이 땅의 시조신인 세을나와 혼인하였다는 『별랑국 세 왕녀가 으늘의 『은평리』인 『연혼포』(일명 열운포)에서 왔다는 삼성신화와 대조하여, 대국 명나라 (또는 강남 천제국)에서 난리에 쫓겨 표착상륙했다는 여인 세형제가 이 『열운포』에서 올라왔다는 무속신화는 어딘가 깊은 인연이 있는것 같으며, 삼성신화에 있어서 세을나와 세 왕녀의 혼인처에 관해서 「연혼포 (열운포) 혼인지설 (婚姻趾說)」이 으뜸인 한편 『금당(金塘 조천포)혼인지설』이 있음과 대조하여, 세 외래 여무신중만이 되는 <정중부인>의 좌정본향이 『조천본향』이라는 무속신화에도 어떤 관계가 있을것 같다.

삼성신화와 당신화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상호간의 깊은 관계를 구명해낸 선학들이 있었지만 본고에서는 『혼인지』를 중심으로 고찰을 시도해본 것이고, 삼성신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은 산악계신과 해양계 여신과가 혼인을 맺는 설화로는 제주도의 당신화에 많이 나올뿐만 아니라 신국유사(三國遺事)에 만도 수없이 나옴을 본다

5. 결 론

「삼성혈」은 사적 제134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본도로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적으로서의 문화재인 것이다.

과연 삼성혈의 경내에 들어서면, 소나무 녹나무들의 옥어진 노목밑에, 석인용출의 유서를 간직한 굴철이 상존하여 있고, 이 하늘을 가리운 노목까지 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에는 태고의 숨결이 감도는듯 하다.

「삼성혈」이 이렇듯 본도 유일의 사적문화재로 지정 받았다면, 이 「삼성혈」과 더불어 삼성신화의 역사를 간직한 「성산면 온평리」의 「혼인지」와 「제주시 삼양동」의 「삼사석」도 「삼성혈」과 더불어 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호호 보존이 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삼성신화와 결부된 이들 사적가운데서 새 신인이 등장했다는 「삼성혈」만은 문화재로서 지정하고 있지만 「삼사석」과 「혼인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된 실정이다.

그래도 「삼사석」은 일찌기 석실(石室)이 마련되어 우로를 막아내고 그로 뜻있는 분의 손길로 「삼사석」임을 알리는 비석까지 세워졌지만 「혼인지」는 보호해야겠다는 사람조차 없이 버려져 왔다.

그러한 것이 지상에 와서 이 「혼인지」 뜻가에 「혼인지」임을 알리는 비석이 젊은 두지가의 고마운 뜻으로 세워지고, 「온평리」 이민들도 이에 호응 고적보존과 환경미화작업에 나섰으며, 이를 같이하여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이 유서깊은 「혼인지」를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임은 향토의 문화재를 아끼는 이로서는 누구나 반가와 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모든 정성이 열매를 맺는 앞날에 본도 최초의 개척신인 삼신의 혼례의 역사와 전설의 교장이 도민이나 외래방문객의 마음속에 다시 되살아나, 아름답고 낭만적인 이야기를 끝없이 속삭여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삼성신화를 되새겨 보고 삼성신화와 얽혀있는 이 「혼인지」에 대하여 여러가지의 각도에서 고찰해 본다는 것은 뜻깊은 일로 확신한다.

인용 · 참고문헌

李元鎭·耽羅誌
金錫翼·耽羅紀年
金斗奉·耽羅誌
淡水契·增補耽羅誌
東國輿地勝覽
東國通鑑
朝鮮實輿勝覽
編禮抄

朝鮮四千年史
震壇學會·韓 史
大東氏族放
萬姓大同譜
張主근·三姓神話解釋의한 試圖(국어국문학22호)
玄容駿·堂文의 儒式化와 三姓神話(제주도14호)
秦聖麒·南國의 무歌